

## 중년기 여성 기성복의 신체적합성 개선에 관한 연구

박상희, 조진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본 논문은 신체적 변화가 큰 중년여성의 착장 형태와 의류업체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의복을 제작하여 중년여성의 신체에 보다 적합한 의복 요건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착의 형태와 의류업체의 치수현황, 그리고 실험복에 의한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중년여성에게 선호되는 착의 형태는 주로 블라우스, 스커트, 자켓이었으며 이들의 신체적합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상의의 소매길이와 하의의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부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업체 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수선요구가 이러한 불만족 사항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현행 기성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체의 사용치수에 체형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Drop치를 3가지로 분류하여 실험복을 제작하여 착장평가를 행하였다.

착장 실험의 결과, 피험자의 주관적 평가와 관찰자의 객관적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피험자에 비해 관찰자의 외관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하의보다 상의의 불만족항목간의 차가 컸다. 그러나 전반적인 결과의 평균에 의하면 상의 자켓과 하의 스커트에 있어서 Drop치가 5.0~6.0인 의복 형태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체형계측에 의한 피험자의 신체 Drop치와 유사한 실험복의 착장시 상의에서는 여전히 Drop치가 5.0~6.0인 자켓이, 하의의 경우는 Drop치가 2.5~3.5인 스커트의 만족도가 높았다. 스타일에 있어서는 위의 두경우 모두 박스형과 Semi-fit한 형에서는 Semi-fit한 형에 대한 만족도가 플리츠 스커트보다는 타이트 스커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소매길이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서 표준치수체계의 Drop치가 5인 것이 50%를 차지하는 반면 중년여성의 체형은 오히려 2.5~3.5의 Drop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의복은 다양한 체형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치수체계를 Drop치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치수규격이 성인 여성의 치수규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수의 세분화가 생산자의 생산비용에 부담을 안겨주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에는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년여성의 생산과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